

원재료 수입가격 상승의 가공식품 물가 영향

김상효·김종진·주준형

요약

국내 농산물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가공식품 물가는 작년에 이어 최근까지 상승세가 지속 심화되는 양상

- 농산물 물가는 2020년 3분기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여 2021년 1분기에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 하향 안정세가 2022년 2분기 까지 지속됨.
-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2021년 3분기에 2.2%까지 상승한 이후 급등추이가 이어져 2022년 2분기는 7.6%까지 확대됨.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상승한 국제곡물 가격이 반영되는 하반기에도 곡물 수입물가 및 가공식품 물가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가공식품 물가는 수입곡물 가공품인 식품소재와 이의 2차 가공품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국제곡물 가격 상승이 국내 가공식품 물가상승의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됨.
- 국제곡물 가격의 국내 수입물가 반영은 3~6개월 소요되며 수입물가의 소비자물가 반영도 일정 시간이 소요됨.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누적 식품물가 파급영향은 여타 요인의 영향에 비해 크며, 제분, 제당, 배합사료, 전분 및 당류 순으로 가공식품 물가상승 가공식품 기여율이 큰 것으로 분석됨.

- 2022년 1분기 국제 원재료 가격이 2년 전인 2020년 1분기 대비 추가로 45~56% 상승함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가공식품 물가는 업종·부류별로 약 2.0~21.8%의 상승 요인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상승 요인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가공식품 물가상승 요인보다 큰 수준임.

글로벌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등으로 향후 국제곡물 시장의 위기는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곡물 시장 위기는 국내 가공식품 산업의 생산활동 및 물가 영향이 매우 크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

- 산업계에서는 원재료 수급 및 물가 여건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응답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 노력을 촉구하고 있음.
- 정부는 2022년 5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식품에 대해 할당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 또는 면제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에 더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제곡물 위기 대응 수단 마련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행 필요

01

식품 물가와 원재료 가격 동향

1.1. 농산물 및 가공식품 물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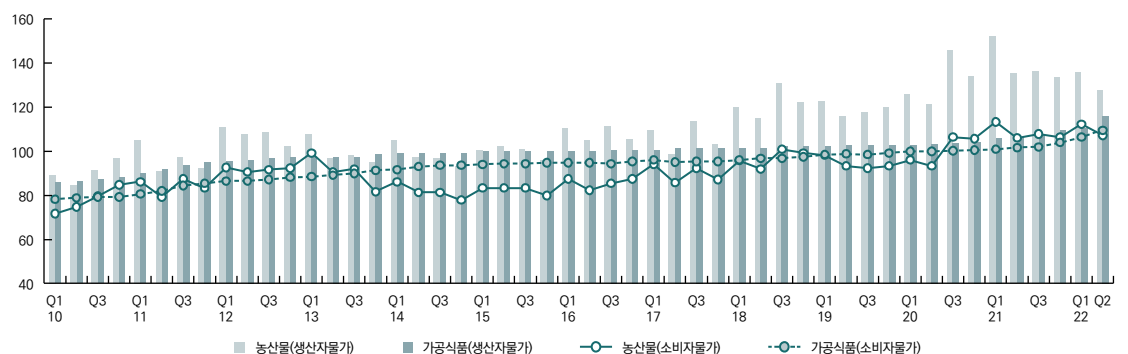
농산물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가공식품 물가는 작년에 이어 최근까지 상승세가 지속 심화되는 양상

농산물 물가는 2020년 3분기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여 2021년 1분기에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 하향 안정세가 2022년 2분기까지 지속

- 금년 2분기 농산물 생산자물가지수(2015=100)는 127.8로 전년 동기 대비 5.9% 낮았으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는 107.1로 전년 동기 대비 0.2% 낮은 수준이나, 2020년 동기에 비해서는 각각 5.3%, 14.6% 높은 수준임.
- 농산물 생산자물가는 시계열 변동성이 큰 특성을 보이며 특히, 2020년 하반기에서 2021년 상반기에 크게 상승함. 반면, 농산물 소비자물가는 생산자물가에 비해 변동성이 작으나 생산자물가와 유사한 추세를 보임.
-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농산물 물가상승은 2020년도 하반기의 과일 및 채소 가격 상승과 2020년산 쌀값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그림 1〉 농식품 및 가공식품 물가지수 추이

단위: 2015년=100(생산자물가지수), 2020년=100(소비자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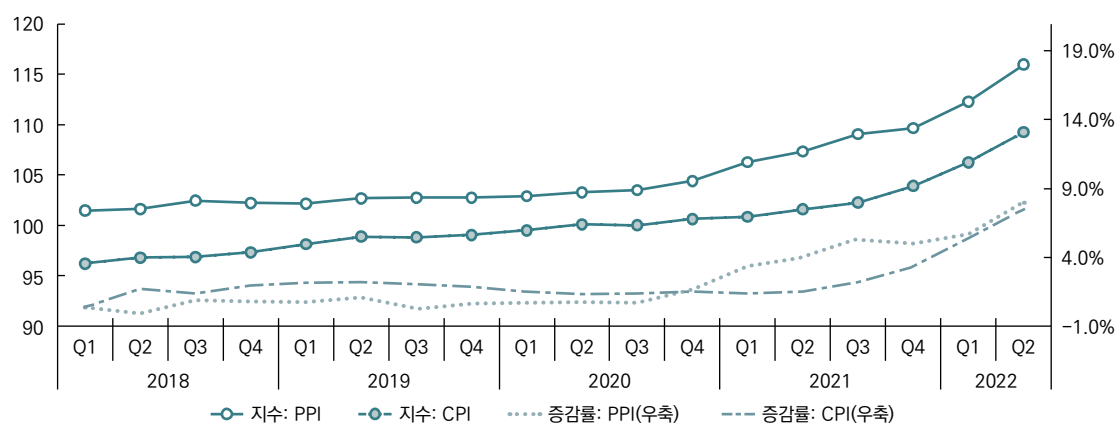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각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검색일: 2022. 7. 15.

가공식품 생산자물가는 2021년 1분기부터 상승세가 본격화되었으나 소비자물가는 이보다 3분기 늦은 동년 4분기부터 상승세로 전환됨. 이후 현재까지 상승세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임.

- 2015년부터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까지 가공식품 생산자물가(음식료품)와 소비자물가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각각 0.7%, 1.2%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음.
- 그러나 가공식품 생산자물가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2020년 4분기 1.6%까지 상승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2년 4분기는 8.0%를 기록함.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2021년 3분기에 2.2%까지 상승한 이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22년 2분기는 7.6%까지 상승함.

〈그림 2〉 최근 가공식품 물가 추이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생산자물가지수는 2015년을,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각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검색일: 2022. 7.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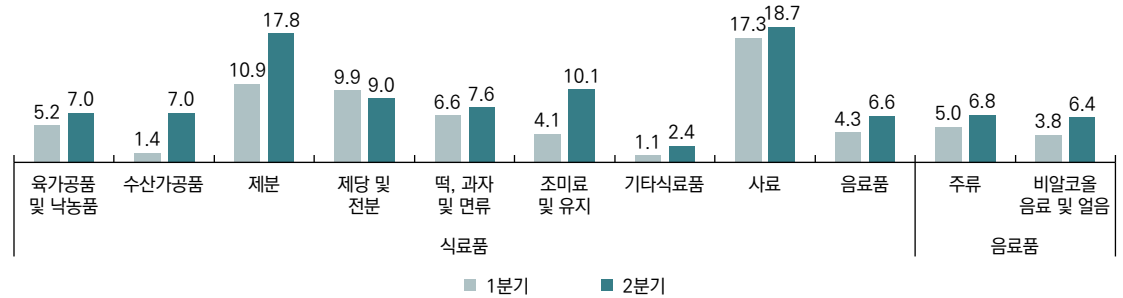
수입곡물 가공품인 식품소재와 이의 재가공품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가공식품 물가상승은 국제 곡물 가격상승이 주요인인 것을 알 수 있음.

가공식품 물가상승은 제분, 제당 및 전분, 식용유, 사료 등의 수입곡물 가공품 및 이의 재가공 품의 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 2022년 2분기 가공식품 부류별 물가 상승률은 사료가 18.7%로 가장 크고 이후 제분 17.8%, 조미료 및 유지 10.1%, 제당및전분 9.0% 순으로 나타남.
- 사료용 수입 밀, 옥수수, 대두는 사료 산업을 통해 배합사료로 가공된 이후 축산농가에 판매되며 식용 밀, 옥수수, 대두, 원당은 각각 1차 가공산업을 통해 밀가루, 전분 및 당류, 식용유 등의 식품소재로 1차 가공되며 이후 면류, 과자 등으로 재가공되어 소비자에 판매됨.
- 수입 곡물 가공품 중심의 물가상승은 2020년 하반기부터 지속되어온 국제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의 영향으로 판단됨.

〈그림 3〉 2022년도 식음료품 부류별 물가 상승률

단위: %



주: 생산자물가지수(음식료품)로 계산함.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2022). 생산자물가지수. 검색일: 2022. 7.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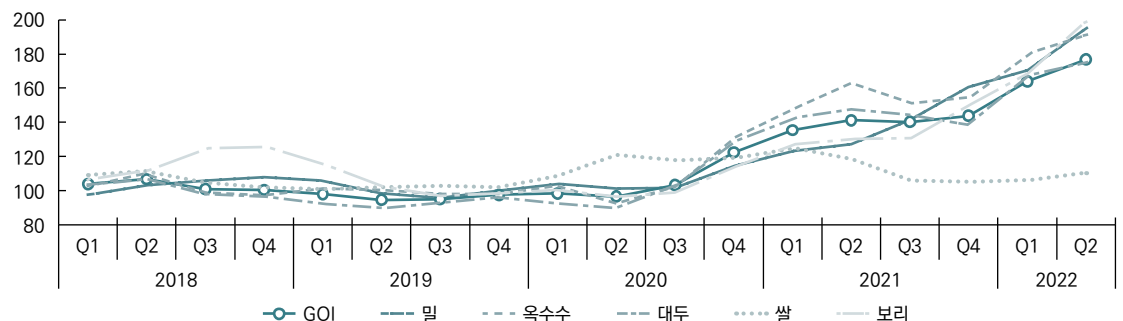
1.2. 원재료 가격 동향 및 전망

국제곡물 가격은 2020년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는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시 급등함. 2020년 4분기부터 국내 곡물 수입가격 상승이 시작됨.

작황 악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곡물 가격(IGC GOI 기준)은 2022년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5.5% 상승함. 이는 국제곡물 가격상승 이전인 2020년 2분기와 비교할 경우 84.2% 상승한 것임.

- 국제곡물 가격은 2015년 이후 안정세를 이어왔으나 코로나19, 미·중 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남미 등의 작황 악화로 2020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전환됨.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이은 각국의 식량 수출규제 조치는 국제곡물 가격을 급등시킴.
- 2022년 2분기 국제 밀, 옥수수, 대두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4.2%, 17.8%, 19.1% 상승하였으며 이는 2020년 2분기와 비교할 경우 각각 93.5%, 106.7%, 94.4% 상승한 것임.

〈그림 4〉 국제곡물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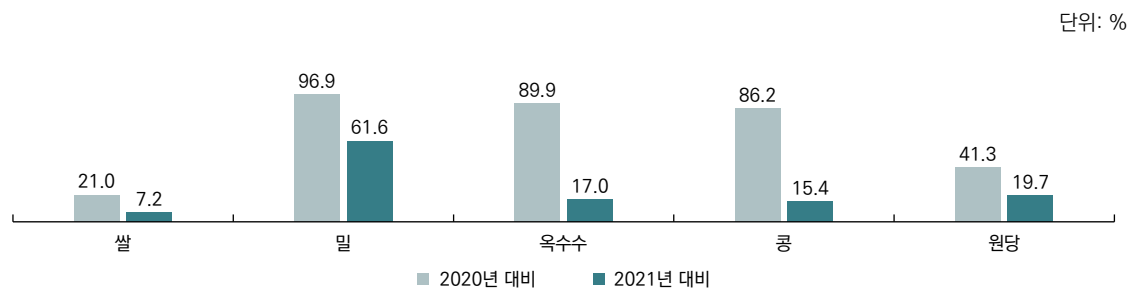
주: 세계곡물협회(IGC)의 전체 곡물가격 지수(GOI: Grains and Oilseeds Index) 품목별 가격지수이며 2015년을 100으로 재설정하였음.

자료: IGC Grains and Oilseeds Index(<https://www.igc.int/en/markets/marketinfo-goi.aspx>) 웹페이지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옥수수과 대두 수입가격은 2020년 4분기, 밀 수입가격은 2021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함. 2022년 2분기 밀, 옥수수, 대두 수입가격은 가격상승 이전인 2020년 2분기 대비 모두 80% 이상 상승함.

- 2022년 2분기 수입가격(달러 기준)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밀 61.6%, 옥수수 17.0%, 콩 15.4%, 원당 19.7%, 쌀 7.2% 수준임. 이는 수입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이전인 2020년과 비교할 경우 밀은 96.9%, 옥수수 89.8%, 콩 86.2%, 원당은 41.3% 상승한 것임.

<그림 5> 2022년 2분기 식품 원재료 수입 가격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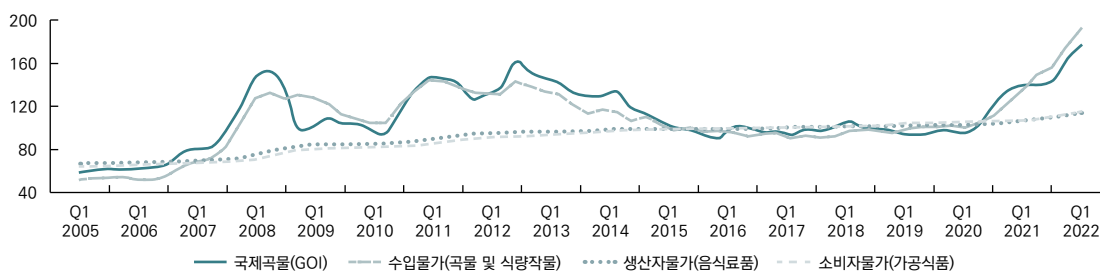
주: 2022년 수입가격(달러 기준) 수준을 2020년 2분기 및 2021년 2분기와 비교한 것임.
 자료: 관세청(<https://unipass.customs.go.kr/ets/>). (각 연도). 수출입통계. 검색일: 2022. 7. 11.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상승한 국제곡물 가격이 반영되는 하반기에도 곡물 수입물가 및 가공식품 물가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국제곡물 가격의 수입물가로의 반영은 3~6개월 소요되며 수입물가의 소비자물가로의 반영도 일정 시간이 소요됨.

- 업체들은 국내 도입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내 도착 3~6개월 이전에 국제곡물 시장에서 곡물을 매입함. 따라서 곡물 수입물가는 국제가격을 3~6개월 후행함.
- 2007~08년 애플리케이션과 2011~12년의 국제곡물 가격 급등 시에도 현재와 비슷한 국내 가공식품 물가 급등을 경험함.

<그림 6> 국제곡물 가격 및 관련 국내 물가 추이



주: 국제곡물 가격지수는 세계곡물협회(IGC)의 Grains and Oilseeds Index이며 수입물가는 원화 기준 지수임. 모든 가격은 지수로 2015년을 100으로 설정하였음.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각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검색일: 2022. 7. 15.; IGC Grains & Oilseeds Index (<https://www.igc.int/en/markets/marketinfo-go.aspx>). 웹페이지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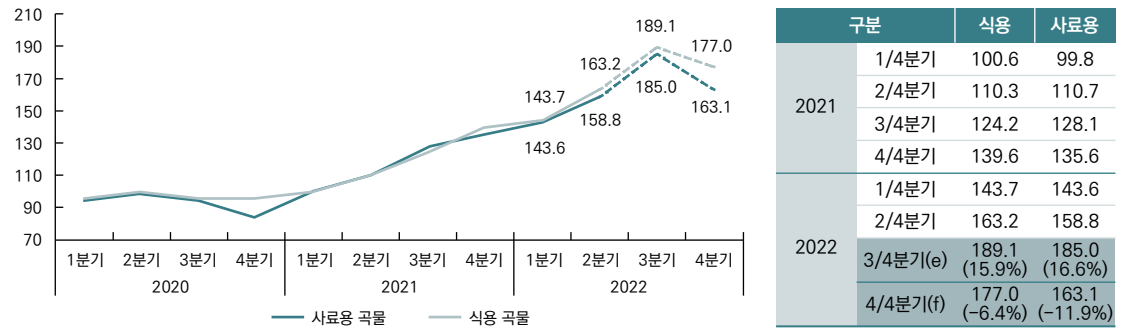
원재료 수입가격 상승의 가공식품 물가 영향

국제곡물 수입가격은 올해 하반기에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곡물 수입가격은 2021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해 왔으며, 3분기에는 1분기 대비 약 30% 추가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추세는 4분기에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7〉 국제곡물 평균수입가격 동향과 전망(2015=100)

단위: 2015년=100



주 1) 품목별 식용, 사료용의 국내 수입액 가중치(최근 5개년 평년) 및 IHS Global Insight 대미환율 전망치를 이용하여 산출함. 괄호 안은 전 분기 대비 증감률.

2) 곡물 수입단가의 전망치는 관련 품목들의 반입 시점별 환율의 영향을 받으므로,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국제곡물 2022년 8월호(KREI 식품·배합사료 물가전망모형).

02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가공식품 물가 파급영향

2.1. 수입원재료 이용 업종의 원재료 구성과 원가 비중

수입원료 이용 식품산업 업종별 원재료 제조원가 비중은 54~78% 수준

국제곡물 등 수입원재료를 많이 이용하는 업종(생산품목)별 원재료비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기업의 생산·공급비용 변화를 추정하는 데 필수적으로 파악되어야 함.

- 업종(생산 품목 기준) 유형별 원재료비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8,727개 식품제조기업 중 주생산품목이 해당 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원재료비의 총원가(제조원가) 대비 비중을 산출함(신용평가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 업종별 평균 원재료비 제조원가 비중은 53.8%~78.4%로 집계됨.
- 급여 원가 비중이 업종별로 5.8~24.6% 수준임을 감안할 때, 식품제조업 경영에서 원재료비의 변동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¹⁾

〈표 1〉 식품산업 업종별 원재료비의 제조원가 대비 비중(2021년 기준)

단위: %

	빵류	과자류	면류	커피 및 코코아	음료류	제분	제당	식용유지	식품산업 전체
원재료비 원가 비중	58.8	59.4	61.5	65.1	53.8	73.5	65.5	78.4	74.8
급여 원가 비중	24.6	15.1	14.0	9.3	9.3	5.8	13.1	6.1	8.0
계	83.4	74.5	75.5	74.4	63.1	79.3	78.6	84.5	82.8

주: 기업 단위 데이터로 해당 업종으로 구분되는 업체에 대해 집계.

자료: (주)한국평가데이터 내부자료.

식품제조업체 주요 원재료는 밀, 대두(콩), 옥수수, 팜유, 커피원두 등

- 품목별 주요 원재료
 - 빵류: 소맥분, 백설탕, 계란, 팥앙금, 버터, 정제소금
 - 과자류: 소맥분, 백설탕, 감자, 팜유류, 물엿, 계란

1) 식품제조업의 2016년 대비 2021년 임금의 증가율은 24.5%임. 2020년 대비 2021년 임금 증가율은 2.85%이며, 이러한 임금 증가율의 제조원가 상승요인은 업종별로 0.2%~0.7% 수준으로 매우 낮음.

원재료 수입가격 상승의 가공식품 물가 영향

- 면류: 소맥분, 팥유류, 감자전분, 변성전분(덱스트린), 건조채소, 고구마전분
- 제분: 소맥(밀), 옥수수, 소맥분, 쌀, 옥수수전분, 백설탕
- 제당: 원당, 옥수수, 물엿
- 식용유지: 대두, 옥수수, 대두유, 팥유류, 참깨

〈표 2〉 가공식품 품목별 주요 원재료와 구성비

단위: %

품목명	원재료별 비중
빵류	소맥분(밀가루) 62.6, 백설탕 11.2, 계란 6.0, 팔랑금(팥) 3.2, 버터 2.3, 정제소금 1.5
과자류	소맥분(밀가루) 44.3, 백설탕 12.1, 감자 8.3, 팥유류 4.6, 물엿 4.3, 계란 2.6
면류	소맥분(밀가루) 61.9, 팥유류 18.5, 감자전분 5.4, 변성전분(덱스트린) 1.9, 건조채소 1.5, 고구마전분 1.4
커피 및 코코아	커피원두 35.0, 원유 29.1, 백설탕 26.2, 물엿 3.0, 올리고당류 1.8, 전지분유 0.9
음료류	과당류 20.6, 백설탕 20.0, 감귤 18.0, 농축과채즙 9.0, 대두 8.3, 원유 7.8
제분	소맥(밀) 70.9, 옥수수 21.9, 소맥분(밀가루) 2.2, 쌀 1.6, 옥수수전분 0.8, 백설탕 0.5
제당	원당 57.1, 옥수수 40.8, 물엿 0.7
식용유지	대두 65.8, 옥수수 13.9, 대두유 10.1, 팥유류 4.6, 참깨 3.3

주: 사용량 기준이며 구성비중이 높은 순(최대 6순위)으로 집계한 것으로 원재료 비중의 합계가 100%가 되지 않음.
 자료: 2021 식품산업 원료소비실태조사 통계표 및 원자료를 사용하여 저자가 재작성함.

2.2. 원재료별 가격상승률과 원가 상승 요인

2022년 1분기 가공식품 원재료별 가격상승률

- 주요 가공식품의 원가가 2022년 1분기 주요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추정하고자, 2022년 1분기 가공식품 주요 원재료별 평균 가격의 전년 동기대비 상승률을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함.
- 원재료별 가격상승률을 살펴보면 옥수수 35.8%, 대두(콩) 31.5%, 소맥(밀) 63.5%, 커피원두 71.3%, 원당은 37.0%로 나타남.

〈표 3〉 2022년 1분기 가공식품의 전년 동기 대비 원재료별 가격상승률

단위: %

품목명	원재료별 가격상승률
빵류	소맥분(밀가루) 9.9, 백설탕 4.4, 계란 -15.9, 팔랑금(팥) -11.1, 버터 -11.4, 정제소금 2.2
과자류	소맥분(밀가루) 9.9, 백설탕 4.4, 감자 27.7, 팥유류 73.9, 물엿 15.2, 계란 -15.9
면류	소맥분(밀가루) 9.9, 팥유류 73.9, 감자전분 10.9, 기타전분 10.9, 건조채소 1.9, 고구마전분 10.9
커피 및 코코아	커피원두 71.3, 원유 2.2, 백설탕 4.4, 물엿 15.2, 올리고당류 15.2, 전지분유 6.0
음료류	과당류 14.2, 백설탕 4.4, 감귤 -5.3, 농축과채즙 5.8, 대두 31.5, 원유 2.2
제분	소맥(밀) 63.5, 옥수수 35.8, 소맥분(밀가루) 9.9, 쌀 -8.4, 옥수수전분 10.9, 백설탕 4.4
제당	원당 37.0, 옥수수 35.8
식용유지	대두 31.5, 대두유 65.8, 옥수수 35.8, 팥유류 73.9, 참깨 -8.7, 들깨 2.0

주 1) 수입물가를 활용한 값의 경우 환율 등락률을 반영(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함.

2) 2021년 1분기(1~3월)에 대한 2022년 1분기(1~3월) 평균 증감률로 계산함.

3) 정제소금의 경우, 염장류의 생산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가격상승률을 구한 값에 해당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2022). 생산자물가지수. 검색일: 2022. 7. 1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수입물가지수. 검색일: 2022. 7. 15.

- 생산품목(업종)별 원재료비 증가율은 “원재료 구성비중 × 원재료별 가격상승률”의 가중합계로 구함. 원재료비 증가율은 업종에 따라 5.1~47.8%로 추정됨.
- 품목별 원가 상승률 추정 결과, 2022년 1분기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공식품의 공급원가는 품목에 따라 약 3.0~41.5%씩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3% 이상~10% 미만: 빵류(3.0%), 음료류(3.3%), 과자류(7.5%)
 - 10% 이상~20% 미만: 면류(12.8%), 커피 및 코코아(17.9%)
 - 20% 이상: 제당(23.4%), 식용유지(27.8%), 제분(41.5%)

〈표 4〉 2022년 1분기 가공식품의 전년 동기 대비 품목별 원가상승요인 추정

단위: %

품목명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원가상승요인		
	원재료비 증가율	원재료비 원가비중	총원가 상승 요인
빵류	5.1	58.8	3.0
과자류	12.6	59.4	7.5
면류	20.8	61.5	12.8
커피 및 코코아	27.5	65.1	17.9
음료류	6.1	53.8	3.3
제분	47.8	75.2	41.5
제당	35.7	62.7	23.4
식용유지	35.5	82.3	27.8

주 1) 수입단가(관세청의 수입금액을 수입물량으로 나눈 것), 생산자물가(한국은행), 수입물가(한국은행) 기준

2) 2021년 1분기(1~3월)에 대한 2022년 1분기(1~3월) 평균 증감률로 계산함.

2.3.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물가 파급영향계수와 파급영향

동일 가격변동에 따른 물가 파급영향계수는 밀, 원당, 옥수수, 대두 순

- 밀, 대두, 옥수수, 원당 등 국제 원재료 가격 10% 상승에 따른 업종별 물가에 대한 영향계수는 제분 3.96%, 제당 3.95%, 배합사료 2.33% 전분 및 당류 2.29% 순임.
 - 밀 가격 10% 상승은 제분에 대해 3.8%에 해당하는 가격 상승 요인
 - 옥수수 가격 10% 상승은 전분 및 당류에 대해 1.6%에 해당하는 가격 상승 요인
 - 대두 가격 10% 상승은 유지 및 식용유에 대해 0.9%에 해당하는 가격 상승 요인
 - 원당 가격 10% 상승은 제당에 대해 4.0%에 해당하는 가격 상승 요인

〈표 5〉 국제 원재료 가격 10% 변동에 따른 식품물가 파급영향계수

부문명	밀	옥수수	대두	원당	계
제분	3.77	0.17	0.02	0.00	3.96
전분 및 당류	0.05	1.63	0.00	0.61	2.29
떡, 빵, 과자	0.17	0.06	0.08	0.08	0.39
면류	0.43	0.11	0.06	0.02	0.62
유지 및 식용유	0.00	0.26	0.86	0.00	1.13
제당	0.00	0.00	0.00	3.95	3.95
배합사료	0.37	1.73	0.13	0.10	2.33

주: 산업연관표(2018)를 이용하여 산출.

2021년 1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의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의 식품물가 파급영향으로는, 제분, 제당, 배합사료, 전분 및 당류 등의 순으로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22년 1분기 국제 원재료 가격이 1년 전인 2021년 1분기 대비 추가로 약 10~29% 상승함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식품물가는 업종·부류별로 약 1.6~18.9% 상승 요인이 발생했었을 것으로 추정됨.
- 제분(18.92%), 제당(14.73%), 배합사료(9.65%), 전분 및 당류(9.30%) 순으로 파급영향(상승폭)이 클 것으로 추정
- 2021년 1분기 대비 2022년 1분기 식품산업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이 큰 품목은 밀, 옥수수, 원당, 대두의 순으로 분석됨.

2019년 1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의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의 식품물가 파급영향으로는, 제당, 제분, 전분 및 당류, 유지 및 식용유 등의 순으로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22년 1분기 국제 원재료 가격이 3년 전인 2019년 1분기 대비 추가로 약 43~56% 상승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식품물가는 업종·부류별로 약 1.9~22% 상승 요인이 발생했었을 것으로 추정됨.
- 제당(22.10%), 제분(17.30%), 전분 및 당류(12.11%), 유지 및 식용유(5.21%), 제당(0.72%), 면류(0.55%) 순으로 파급영향(상승폭)이 클 것으로 추정
- 2019년 1분기 대비 2022년 1분기 식품산업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이 큰 품목은 옥수수, 밀, 원당, 대두의 순으로 분석됨.

2020년 1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의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의 식품물가 파급영향으로는, 제분, 제당, 배합사료, 전분 및 당류 등의 순으로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22년 1분기 국제 원재료 가격이 2년 전인 2020년 1분기 대비 추가로 약 45~56% 상승함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식품물가는 업종·부류별로 약 2.0~21.8% 상승 요인이 발생했었을 것으로 추정됨.

- 제분(21.79%), 제당(18.25%), 배합사료(12.69%), 유지 및 식용유(5.35%) 순으로 파급영향(상승 폭)이 클 것으로 추정

- 2020년 1분기 대비 2022년 1분기 식품산업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이 큰 품목은 밀, 옥수수, 원당, 대두의 순으로 분석됨.

〈표 6〉 2019~2022년의 각 1분기 기준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의 누적 식품물가 파급영향(1분기 비교)

단위: %

부문명	구분	밀	옥수수	대두	원당	계
제분	2019년 대비 2022년	16.33	0.89	0.09	0.00	17.30
	2020년 대비 2022년	20.76	0.94	0.09	0.00	21.79
	2021년 대비 2022년	18.16	0.71	0.04	0.00	18.92
전분 및 당류	2019년 대비 2022년	0.22	8.49	0.00	3.41	12.11
	2020년 대비 2022년	0.28	9.05	0.00	2.82	12.14
	2021년 대비 2022년	0.24	6.78	0.00	2.28	9.30
떡, 빵, 과자	2019년 대비 2022년	0.74	0.31	0.36	0.45	1.85
	2020년 대비 2022년	0.94	0.33	0.36	0.37	2.00
	2021년 대비 2022년	0.82	0.25	0.18	0.30	1.55
면류	2019년 대비 2022년	1.86	0.57	0.27	0.11	2.82
	2020년 대비 2022년	2.37	0.61	0.27	0.09	3.34
	2021년 대비 2022년	2.07	0.46	0.13	0.07	2.74
유지 및 식용유	2019년 대비 2022년	0.00	1.35	3.86	0.00	5.21
	2020년 대비 2022년	0.00	1.44	3.90	0.00	5.35
	2021년 대비 2022년	0.00	1.08	1.92	0.00	3.00
제당	2019년 대비 2022년	0.00	0.00	0.00	22.10	22.10
	2020년 대비 2022년	0.00	0.00	0.00	18.25	18.25
	2021년 대비 2022년	0.00	0.00	0.00	14.73	14.73
배합사료	2019년 대비 2022년	1.60	9.01	0.58	0.56	11.75
	2020년 대비 2022년	2.04	9.60	0.59	0.46	12.69
	2021년 대비 2022년	1.78	7.20	0.29	0.37	9.65

주: 산업연관표(2018)를 이용하여 산출.

03

대응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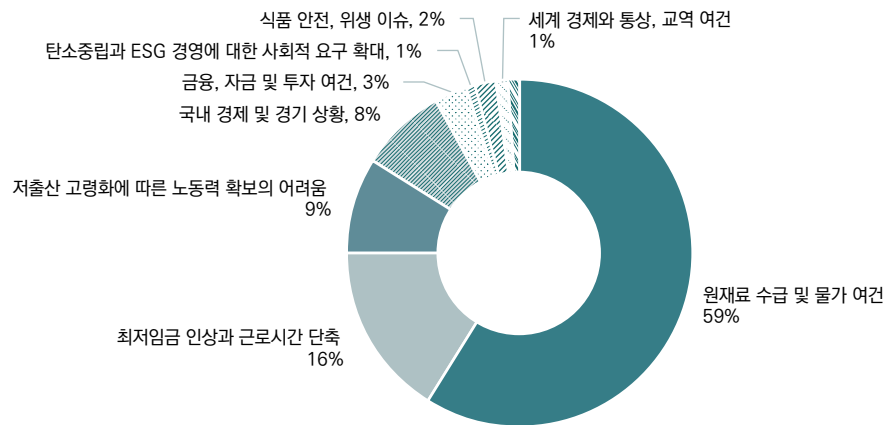
3.1. 산업계 요구와 정부 대응

산업계에서는 원재료 수급 및 물가 여건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응답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 노력을 촉구하고 있음.

- 식품기업 관리자급 154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60% 정도가 ‘원재료 수급 및 물가 여건’이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이슈라고 응답함. 원재료 조달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치솟는 수입물가 수준을 감당하기에는 지원 수준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그림 8〉 식품산업 여건 중 가장 중요한 이슈 1순위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식품기업 관리자급 154인 대상 설문조사.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식량 국제가격 및 유가 상승으로 국내 가공식품 물가 동반 상승. 정부는 2022년 5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식품에 대해 할당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 또는 면제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먹거리, 생계비, 주거 부담 완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정부가 3조 1천억 원 규모로 실시하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 민생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농식품 관련 10대 과제에 대해 후속 조치 및 정책 효과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음.

- 농식품 관련 10대 대책으로 정부는 식품 원료 7대 할당관세 적용, 커피 및 코코아 원두 부가세 한시 면제, 단순가공식품 부가세 한시 면제, 농축산물 할인쿠폰 확대, 밀가루 가격 안정, 사료 구매자금 1조 5천억 원 지원,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식품 가공업체 원료 매입자금 지원,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자금 지원, 면세 농산물 공제 한도 한시 상향을 제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물가 상황을 고려하여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매주 1~2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3.2. 시사점

글로벌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등으로 향후 국제곡물 시장의 위기는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 곡물 시장 위기는 국내 가공식품 산업의 생산활동 및 물가에 영향이 매우 크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

- 국제곡물 시장 수급 여건이 양호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곡물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고곡가는 흑해 지역 곡물 생산 및 수출 능력 저하, 비료 등 농자재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추세가 국내 식품물가에 미치는 파급영향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됨.
-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국제곡물 수급 악화, 가격 급등에 대비해 해외 곡물의 안정적 확보와 물가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수행 중에 있으나 세계 및 금융지원 이외의 근본적인 대응책이 부재함.
- 이는 2007년~08년 애그플레이션 이후 국제곡물 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 곡물자급률 제고, 해외농업 개발, 해외곡물 유통망 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2014년 이후 국제곡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정책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큼.
- 근본적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체 원산지 개발, 금융 및 세계지원 등의 정책이 수행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에 더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제곡물 위기 대응 수단 마련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수행 필요

- 농식품 물가의 상승은 특히,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불안정성 우려를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함.
- 국제곡물 위기 대응 수단 마련을 위한 국내 곡물자급률 제고, 해외농업개발, 곡물 유통망 진입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성과를 낼 수 있음.
- 2007년~08년 애그플레이션 이후 위기 대응 수단 마련을 위해 추진된 정책이 이후 이어진 국제곡물 가격 안정세로 국민적 관심사에서 멀어지면서 관련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이 설계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

[부 록]

식품산업 원료별 구입액 비중과 생산자물가 상승률

〈부표 1〉 식품산업 원료별 구입액 비중과 생산자물가 상승률(2015=100)

단위: %, %p.

부류	소재 여부	품목명	구입액 비중				생산자물가지수(1/4분기)		
			2016 (a)	2019 (b)	2020 (c)	증감 (c-b)	2021 (c)	2022 (d)	등락률 (d-c)/c * 100
곡류 및 곡분	원물	쌀	3.0	2.7	2.6	-0.1	139.0	127.4	-8.4
		옥수수*	2.8	2.8	3.0	0.2	144.0	195.5	35.8
		밀*	5.0	5.9	6.7	0.8	107.1	175.1	63.5
	소재	밀가루	4.8	4.0	4.4	0.4	99.0	108.7	9.9
두류 및 서류	원물	콩*	5.0	3.9	4.4	0.5	113.5	149.3	31.5
	소재	주정	6.6	5.4	5.5	0.1	100.0	108.2	8.2
엽근채류	원물	배추	1.6	4.2	3.7	-0.5	147.9	176.5	19.3
		무	1.0	1.6	1.3	-0.3	119.6	124.6	4.2
양념채소류	원물	건고추	1.3	1.5	1.7	0.2	211.3	151.0	-28.5
		마늘	0.9	0.7	0.7	0	125.1	149.2	19.3
	소재	고춧가루	1.4	1.4	1.5	0.1	136.2	116.1	-14.8
특용 작물류	원물	인삼	1.8	1.9	1.8	-0.1	85.3	86.7	1.6
과일 채소 (유래) 식품	소재	농축과·채즙	1.3	1.2	1.5	0.3	122.5	129.7	5.8
축산물 및 (유래) 식품소재	원물	쇠고기	4.3	3.8	3.3	-0.5	121.5	116.3	-4.3
		돼지고기	6.2	6.3	6.4	0.1	85.1	97.8	15.0
		닭고기	3.8	3.6	3.8	0.2	130.5	155.0	18.7
		계란	1.2	1.0	1.3	0.3	139.0	117.0	-15.9
우유 및 유가공품	원물	원유	11.1	11.6	11.0	-0.6	100.3	102.5	2.2
	소재	치즈	1.0	1.0	1.1	0.1	99.4	99.4	0.0
수산물 및 (유래) 식품소재	원물	물오징어	1.4	1.5	1.7	0.2	256.1	264.1	3.1
	소재	마른김(맛김)	2.6	1.8	1.8	0	104.8	104.8	0.0
		어육살	1.3	1.4	1.5	0.1	103.4	104.2	0.8
당류	원물	원당	3.9	2.8	2.8	0	-	-	-
	소재	백설탕(정제당)	2.4	2.5	2.5	0	99.1	103.4	4.4
식용유지류	소재	팜유류(식용정제유)	2.6	0.9	1.5	0.6	102.1	123.5	21.0
커피(류) 소재	원물	커피원두*(원두커피)	2.2	1.8	1.7	-0.1	80.6	138.0	71.2
	기타		19.5	22.8	20.8	-2.0	-	-	-
	계		100.0	100.0	100.0	-			

주 1) 2019년 기준 1% 이상 품목에 대해 정리하고 나머지 품목은 '기타'로 정리

2) 2019년 건강기능식품 소재(고시형 원료)도 '기타'로 포함

3)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 옥수수, 콩(대두), 커피원두의 경우, 생산자물가지수가 아닌 수입물가지수값을 사용(*표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aT(각 연도). 식품산업 원료소비실태조사 및 한국은행(각 연도). 생산자물가지수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가 재작성함.

참고문헌

- 농림축산식품부, aT. (각 연도). 식품산업 원료소비실태조사.
- 한국은행. (각 연도). 산업연관표.
- 한국은행. (각 연도). 생산자물가지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식품기업 관리지급 154인 대상 설문조사.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각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검색일: 2022. 7. 15.
- IGC Grains & Oilseeds Index(<https://www.igc.int/en/markets/marketinfo-goi.aspx>). 검색일: 2022. 7. 22.
- 관세청(<https://unipass.customs.go.kr/ets/>). (각 연도). 수출입통계. 검색일: 2022. 7. 1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국제곡물 2022년 8월호(KREI 식품·배합사료 물가전망모형) 검색일: 2022. 7. 1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http://www.krei.re.kr:18181/new_sub01). 검색일: 2022. 7. 1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https://aglook.krei.re.kr/main/uObserveMonth/OVR0000000073>). 검색일: 2022. 7. 11.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검색일: 2022. 7. 15.
- (주)한국평가데이터 내부자료.

2022년

- 제209호 원재료 수입가격 상승의 가공식품 물가 영향(김상호, 김종진, 주준형)
- 제208호 농산어촌 관계인구 현황과 의의(성주인, 송미령, 한이철, 정학성)
- 제207호 한·미 FTA 10년, 농식품 교역 변화(김경필, 이현근, 곽혜선, 명수환, 구혜민, 박서윤)
- 제206호 신 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 활성화(송미령, 성주인, 심재현, 한이철, 권인혜)
- 제205호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곡물 시장 영향 분석(김종진, 김지연, 정대희, 박성진, 김범석, 윤성주)
- 제204호 WTO 농업협상 최근 논의 동향 및 전망(김상현, 정대희, 이두영)
- 제203호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정도채, 박혜진)
- 제202호 2022년 10대 농정이슈(이명기 외)

2021년

- 제201호 최근 농산물 가격 변동 실태와 시사점(국승용, 서홍석, 서동주, 권상욱, 김경진)
- 제200호 2020년 귀농·귀촌 동향과 시사점(송미령, 성주인, 심재현, 한이철, 민경찬)
- 제199호 탄소중립, 농촌 태양광의 이슈와 과제(김연중, 서대석, 허정희, 이정민)
- 제198호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당면과제(김상호, 이계임, 유기환)
- 제197호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의의와 시사점(송미령, 성주인, 심재현, 서형주)
- 제196호 2021년 10대 농정이슈(이명기 외)

2020년

- 제195호 2020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우병준, 박혜진)
- 제194호 귀농·귀촌 인구이동 동향과 시사점-2019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중심으로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정도채, 한이철)
- 제193호 코로나19 사태와 북한의 식량수급 동향과 전망(최용호)
- 제192호 환경 변화를 반영한 2020년 농업부문 수정 전망(서홍석, 김충현, 김준호)
- 제191호 2020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 및 가격 전망(국승용, 이형우, 윤종열, 김종인, 한은수, 은종호, 서강철)
- 제190호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박미성, 박시현, 이용선)
- 제189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서홍석, 순병민, 김충현)
- 제188호 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엄진영)
- 제187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 곡물 시장 영향 및 전망(박성진, 박지원, 강두현, 안정욱)
- 제186호 2020년 10대 농정이슈(이명기 외)

2019년

- 제185호 201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이정민, 우성휘, 이명기, 박혜진)
- 제184호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필요성과 도입 방안(김상호, 이계임, 임소영, 허성윤)
- 제183호 동남아 6개국(CLMVIP)의 쌀 산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방향(김종선, 이윤정, 조선미)
- 제182호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와 개선과제(채광석, 김부영)
- 제181호 2019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 및 가격 전망(국승용, 이형우, 윤종열, 한은수, 김종인, 은종호)
- 제180호 최근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이형우, 한봉희, 우병준, 박기환)
- 제179호 2013~2017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유찬희, 서홍석, 김태후)
- 제178호 양봉산업의 위기와 시사점(이정민, 김용렬, 김창호, 우성휘)
- 제177호 2018년 국민들은 농업·농촌을 어떻게 생각하였나?(송성환, 박혜진, 김용렬)
- 제176호 2019년 10대 농정 이슈(정민국 등)

KREI 농정포커스

감 수 이용선 명예선임연구원 061-820-2320 yslee@krei.re.kr
내 용 문 의 김상호 연구위원 061-820-2218 skim@krei.re.kr
발 간 물 문 의 유정인 선임전문원 061-820-2282 edela@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209호

원재료 수입가격 상승의 가공식품 물가 영향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2. 8.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